

己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기 모년 새해를 맞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회원사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기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창간 20년을 맞이하는 월간 <국방과 기술>에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신 각계 인사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지구촌에는 평화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편 불안과 긴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와중에 곳곳에서 갖가지 분규가 계속되는가 하면 국제적 협력의 흐름 이면에서는 자국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정부의 햇볕정책과 정경분리 방침에 따라 긴장완화가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지하 핵시설 의혹 등으로 위기의 파고가 여전히 높습니다.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면, 동서 양진영으로 세계지도를 갈랐던 냉전시대가 사라진 대신 열강들이 지역패권을 노리고 각개약진하면서 군비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무기 중심의 군사력을 확충해 유사시 군사대국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중국도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군비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동북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도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방발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방위비가 삭감되고 국민 일부의 안보의식이 다소 느슨해 지는 것같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주역인 방위산업계 전반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휴시설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IMF까지 겹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업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업계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새해 사업목표를 '방위산업 기반유지와 경쟁력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업계지원에 발벗고 나서 수출 마케팅 강화와 외국과의 기술협력 내실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방산업계도 가일층 분발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선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외 국방관련 소식과 업계 움직임, 선진외국의 무기체계를 비롯한 최신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월간 <국방과 기술> 역시 '군사정보의 寶庫'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방위산업의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柳 纘 佑